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주일 오전 9:00, 임시 본당

주일예배 2부
주일 오전 10:30, 임시 본당

어린이/청소년 예배
주일 오전 10:30, 임시 교육관

7-8월 시리즈 설교



예배순서 안내

인도: 하승민 목사

* 는 일어서서 예배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부르심과 경배

* 경배와 찬양		GLOW 찬양팀
* 예배부름		인도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대표기도		안창희 권사

감사와 드림

봉헌찬송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같이
봉헌기도		하승민 목사

말씀과 응답

성경봉독	사무엘하 9장 1-13절	다같이
설교	은혜에 눈을 뜨는 교회	하승민 목사
결단찬송	주 은혜임을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보내심과 나아감

* 축도	하승민 목사
폐회연주	반주자

온라인 헌금 QR코드


Korean Church of Lawrence
@Korean_Church_Lawrence
last code 5701


venmo

 **로렌스한인교회**
담임목사 하승민
2706 IOWA ST. LAWRENCE, KS66046
872-731-9713
WWW.LAWRENCEKOREANCHURCH.ORG

본문 더 깊이 읽기 Going Deeper into the Bible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는 여러 접근이 있어 왔습니다.

초자연적 증식의 기적

가장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 떡과 물고기가 실제로 많아졌거나, 떼어도 떼어도 줄어들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렀다고 증언합니다.

나눔의 기적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식을 꺼내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눔이 이어져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이해입니다. 다만 본문은 사람들이 음식을 숨겨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것을 꺼내 놓았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문에 기록된 사실이라기보다 사건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궁홀에 초점을 둔 본문 읽기

앞의 두 접근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설명하려 한다면, 이 접근은 복음서가 실제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주목합니다.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셨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떡을 받아 감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기적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떡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늘어났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고픈 군중과 외로운 군중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작은 것을 많다 적다 판단하지 않고 감사하시며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적은 **단지 떡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만 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궁홀,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서 모두를 살리는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제자들의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부족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배고픈 사람은 먹으며, 흠어진 사람들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교회!

로렌스한인교회소식

성령강림 후 제12주일

오늘은 성령강림 후 제 12주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7월과 8월 동안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과 작은 신실함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송 미디어 팀 모집

방송 미디어 팀 모집합니다.

예배시간에 슬라이드, 유튜브 촬영, 음향에 관심있는 성도분들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하승민 목사, 박진기 집사

교인 등록서 작성

교인 등록서를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교인 등록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청년부 - 청년리더

장년 - 하승민 목사

사랑의 쌀 나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작은 정성이 필요한 가정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쌀이 필요하신 분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해 주세요.

문의: 조장미 집사

교회 정리

교회 가운데 유닛을 내일 오전 9~ 오후 2시까지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교회를 정리하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진기 집사

주 일 예 배 섬 김 이

	8/16	8/23	8/30	9/6
주일대표기도	안창희 권사	고예원 자매	문희정 집사	이지성 형제
주일정찬준비	박소진 집사	문희정 집사	조장미 집사	안창희 권사



8월 16주일 메시지 나눔 질문

1.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봅시다.

므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불렀지만, 왕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부족함과 실패, 지금의 형편으로 자신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보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믿는 것입니다.

나눔 질문: 요즘 나는 어떤 모습이나 형편 때문에 나 자신을 작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2. 우리 교회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를 규정하는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붙들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함께 세워져 갑시다.

나눔 질문: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거나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어떤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주님,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부족함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소서.

온라인 사역안내

홈페이지
www.lawrencekoreanchurch.org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https://www.facebook.com/thekoreanpresbyterianchurch>
https://www.instagram.com/kpc_lawrence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PCL1987>

인스타그램_청년부
https://www.instagram.com/kpcl_youngadults